

LG하우시스, 2015년 매출 4조원

해외 매출비중 40%로 확대 ... 투자액의 80% 1등 사업군에 집중

LG하우시스가 4월15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비전발표식을 열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. 미국, 중국, 러시아 등 주력 해외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현지 주도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사업 매출 비중을 2008년 25%에서 2015년 40%로 높이기로 했다.

미국에서는 영업과 생산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차 빅3를 대상으로 자동차용 소재공급을 확대할 전략이며, 중국에서는 완성차 사업을 확대하고 데코시트, 고광택시트 등 건축자재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.

러시아의 창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지 직접투자와 인수합병(M&A) 등을 추진해 생산거점을 적극적 확보해나갈 방침이다.

창호재와 인조대리석, 고기능 표면재 등의 내수사업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1등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총 투자금액의 80% 이상을 1등 사업군에 집중할 예정이다.

2015년에는 1등 사업군의 매출액을 2조9000억원으로 키우고 매출 비중도 70%대로 확대함으로써 총 매출 4조원, 영업이익 4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경영목표도 제시했다.

LG하우시스는 PVC창호, 알루미늄 시스템창, 알우드 시스템창, 기능성 유리,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창호재와 인테리어자재, 표면재, 기능소재, 자동차용 소재 등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15>